

# 趙任道先生의 事蹟

—立岩時調의 발견—

李 東 英

## I. 序 言

—合江亭의 由來—

## II. 澗松先生의 生涯

1) 修學과 業績

2) 孝行과 出處

III. 立岩時調의 발견

IV. 結 言

## I. 序 言

—合江亭의 由來—

오늘 韓國文學會가 와서 發表會를 가지는 이곳 合江亭은 澗松 趙任道先生이 49歲(1633년 癸酉)때 漆原 奈內洞에서 龍山村에 옮겨 살면서 이 龍華山麓 洛江 언덕에 小亭三間을 지었으니 한 칸은 望慕庵이요 원편 한 칸은 沙月樓요 오른편 한 칸은 臥雲軒이다. 이 앞은 鳶魚臺이고 저 바위는 鱸魚巖이니 이를 합하여 合江精舍라 하였다.<sup>1)</sup> 그런데 世人들이 合江亭이라고 일컫는다.

우리가 구경하는 이 龍華山은 洛東江이 咸安郡의 北隅인 道興津을 흐르고 있는 西嶽으로서 山高水長하고 風景이 佳麗하여 일찍부터 嶺右의 한 勝地로 알려진 곳이다.

宣祖朝 1607년(丁未) 봄에 鄭寒岡(逵), 張旅軒(顯光), 郭忘憂(再祐) 諸先生을 비롯하여 從遊한 32명이 여기에서 泛舟同遊한 적이 있었다. 이 때 澗松先生은 23歲로서 아마지 立巖公(趙植)을 모시고 자리를 같이 하였다.

내가 澗松先生의 文集을 읽다가 龍華山下 同泛錄追序文을 보고 느낀 바

1) 澗松文集, 年譜

이같은 特地에서 잘 이루어진 當日의 盛況을 追想하고 龍華諸賢의 高風을 敬慕한지 오래였더니 근간에 趙鏞齋씨로부터 그때 同泛中の 一賢인 匡西 朴震英 先生의 祀孫 朴尙節씨의 所輯인 「沂洛編芳」을 얻어보게 되었다. 그래서 좀더 昭詳하게 玩索할 수가 있었다. 이 책에 의하여 살펴보면 三十五賢의 行蹟이 備載되어 있고 八帖圖에 펼쳐진 畫面에는 오직 龍華山下에서만 볼 수 있는 첩첩의 峯巒과 溪山이 있고, 거기에 散在한 樓臺亭榭며 平湖에 떠다니는 배(舟)와 平沙의 落鴈 등 絶勝의 光景들이 瞭然하게 刻印되어 있었다.

상고컨데 옛날 晋代의 王謝風流를 극치로 떨쳤다는 山陰蘭亭의 修禊事에는 清流激湍이 左右에 흐름에서 一觴 一詠으로 情懷를 暢叙했다고 하나 배를 타고 同泛하는 흥취가 없었고, 赤壁江 뱃놀이에서 蘇子가 與客으로 盃盤이 狼藉하게 淸風明月을 즐겼다고 하나 少數의 人員으로 盛會가 못되었거니와, 거기 비하면 우리 鄒魯鄉에서 道德文章과 風韻氣節로 彬彬한 諸先生의 그날의 盛會야말로 盃盤이 간결하고 禮儀가 和敬했음을 상상할 때 後學인 우리들에게 高尚한 垂範이 아닐 수 없다. 蘭亭에 蘭亭記가 있었고 赤壁에 赤壁賦가 있었듯이 龍華山下에는 同泛錄이 있다. 이 기록은 鄭寒岡의 裁定에 의해서 咸安人 進士 李明忠(號 梅竹軒)가 應命筆書한 것으로 제목을 「龍華山下同泛錄」이라 하였다. 鄭先生이 門人에 명하여 收藏하게 하였던 것이다.

앞서 말했지만 濶松先生은 이 舟遊에 參與하기 위하여 同泛하는 날 前夕에 당시 독서하던 長春寺(在 漆原郡)를 떠나서 그의 季父 伴鷗亭(趙邗)의 別業이 있는 江野에서 자고 平朝에 그의 先大人 立巖公과 伴鷗公을 모시고 이미 沂洛通過한 寒旅 兩先生을 追及해서 道輿律에서 父子가 같이 참여하여 同泛錄을 圖成하였고 후에 追序文을 썼다. 그후 從妹夫人 安 佺을 통해 錄의 草本을 얻어서 所藏하였다가 後世에 先生의 玄孫인 趙弘燁이 朴尙範에게 쓰여줌으로써 「沂洛編芳」을 편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옛날 이같이 先賢의 자취를 소중히 하는 祖先들의 마음 가짐을 우리는 배울 만 하다.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由緒가 있는 이 습江亭에서 發表會를 가지는 중

에 특히 筆者는 澗松 趙任道先生の 事蹟을 밝히고 澗松의 孝誠이 지극한 데서 그의 先大人 立巖公(趙植)의 壬亂前의 時調를 찾아 國文學研究에 보태게 된 것을 기뻐하여 마지 않는다.

## II. 澗松先生の 生涯

### 1) 修學과 業績

澗松 趙任道선생은 咸安人이니 字는 德勇(初字는 致遠)이요 澗松은 그의 雅號이다. 高麗元尹 이를 趙 鼎을 始祖로 한다. 대대로 衣冠縉紳이 많았는데 三司政堂 이를 烈은 先生의 十一代祖이고, 工曹典書 이를 悅은 七代祖이고, 進士 이를 旅 漁溪處士는 五代祖이니 東峰 金時習, 耕隱 李孟傳과 함께 世稱 生六死의 한 분이다. 뒤에 吏曹判書의 贈職을 받았고, 西山院祠에서 享祀되고 있다. 郡守 贈參判 諱 銅虎는 高祖이고, 贈參議 諱 淵은 曾祖이고 副司直 贈參判 諱 庭彥은 祖考이고, 아버지의 諱는 植이요. 號는 立巖이다. 漁溪先生이 郡의 院北村에 卜居했다가 參判公이 다시 劔岩村으로 移居했을 때인 1585年(乙酉) 7月 17日 劔岩里第에서 나시었다. 어머니는 文化柳氏니 秉節校尉 柳祥麟의 따님이다.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孝心을 가져 兒名을 伯孝라고 하였다. 누구의 教督을 기다리지 않고 讀書에 열심하였다. 1592년(宣祖 25) 壬辰倭亂을 당하여 아버지 立岩公을 따라 陝川에서 2년간 피난 생활을 하였다.

立岩公은 아들 澗松을 文獻之鄉에 遊學시키기 위하여 靑松 榮州를 거쳐 奉化에서 槃泉 金承旨(諱 中淸)에게 受學하게 하였다. 金承旨는 李溪隱의 門人인 趙月川(穆)에게 受業한 學名이 높은 분이였다. 그것이 14, 15歲의 兩年間이고 16歲 때 杜谷 高應涉先生께 「大學」을 배웠고, 17歲 때 立岩公이 漆谷 仁同에 寓居하게 되어 旅軒 張顯光先生께 從遊함으로써 張旅軒의 高弟가 되었다.<sup>2)</sup> 澗松이 張旅軒先生을 뵈을 때 初名이 「幾道」였는데 張

2) 澗松文集, 年譜

先生이 「幾는 近辭라 사람이 능히 道에 가까움도 가하나 學者의 立志로 말하면 적극성이 미진하다」하고 父公에게 말하여 任字로 바꾸었다.

潤松先生이 안으로는 庭訓을 받고 밖에서는 師教를 받을어서 理趣가 날로 증진하였다. 學業에는 經書로 根本을 삼고 父母를 섬기기에 誠敬을 극진히 하였다. 이리하여 弱冠의 나이에 벌써 남에게 尊敬을 받았으며 道成 德立의 位置에 섰다하여 南方學者들이 흠연히 尊信하였다. 著書中에 追慕錄과 風樹吟, 孺慕歌 등은 思親의 表出로써 쓰진 것이고, 따로 原別集 6책이 있다. 이중에 「金羅傳信錄」(2책)과 「追慕錄」(1책)은 귀한 文獻이다.

## 2) 孝行과 出處

오늘을 사는 젊은 世代가 생각하면 옛날 우리 祖先들의 孝行이란 誇張이거나 神話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다. 孝를 근본으로 했던 祖先들이기 때문에 事親에는 자신의 努苦를 돌보지 아니하였다. 사람으로서 父母에게 孝를 못하면 罪人인듯 송구했고 國家에 忠誠을 못하면 부끄럽게 여겼다.

潤松先生이 23歲때 1607年(丁未)에 들자 夫人 立岩公이 寢疾에 드셨다. 지극한 정성으로 侍湯하였으나 더욱 깊어가니 마침내 嘗糞甘苦로 患候의 差劇을 증험하고 태양 北辰을 향해 머리를 조아려 자신의 목숨으로 바꾸어 주기를 빌었다 한다. 그러나 2月에 喪考를 당하였다. 상내에는 水漿을 입에 들이지 않아 겨우 지탱했는데 葬禮를 치루고는 墓則에 虛幕(霜露庵)을 짓고 朝夕에 尊饋하며 묘소를 떠나지 않으셨다. 24歲(戊申) 때 居喪大節 十條를 쓰고 追慕錄을 編纂하였다. 1621년(辛酉) 37歲 때 母夫人 柳氏 喪을 당하여서도 전과 꼭 같이 하였다.

1603年(甲辰) 19歲 때 한때 避難했던 陝川에서 劔岩舊里로 돌아와 書室인 困知齋를 짓고 潤邊에 二株公을 심고 自號하여 潤松이라 하였다. 그 뜻을 詩에서 말하되 (필자의 의역)

- 1) 獨愛潤邊松      내 여울가 솔을 사랑하노니  
天寒不改容      歲寒에도 모습은 바꾸지 않음이라.

- 2) 莫嫌春夏無奇節      春 여름에 奇節이 없음을 탓하지 마라  
 到得歲寒方見貞      歲寒이냐야 그 貞節을 아리보다.

라고 하였다. 그것은 松柏의 志節을 본받자고 함이다. 20歲 때(1604년)에 鄉試와 30歲 때(1614년) 東堂試와 그 翌年에 있는 鄉解에 응하고 또한 會試에 응한 바 있었으나 모두 불행하였다. 그후 學業에 나아가기를 그치고 學業에만 전념하였다.

1611년(辛亥年) 先生이 27歲 때 鄭仁弘의 추종자가 李退溪先生을 專斥하는 疏擧事件이 있었다. 潤松先生이 분노하여 黻에 글을 넣는데 孟子의 逢蒙章을 引用하여 그자들을 배격 하였다. 당시 鄭仁弘의 橫暴를 규탄하기란 一身의 生命을 돌보지 않아야 하였다. 潤松은 退溪先生을 私淑하여 그의 學을 尊信하던 까닭이다. 1618년(戊午)에 先塋이 가까운 漆原의 奈內에 移居하여 翔鳳亭을 지었고 1623년(癸亥)에는 鵝湖의 先塋下에 霜露庵을 지으셨다. 49歲 때(癸酉)에 奈內에서 靈山の 龍山村으로 移居하였다. 이로부터 終老之計로 龍華山麓 洛江 언덕에 合江精舍를 지었다. 여기서 松菊梅竹을 栽培하면서 養性怡顏의 生活을 했다.

1633년(甲戌) 50歲 때 被薦에 의하여 恭陵參奉에 除授되었으나 병으로 나가지 않았고 丁亥年(63歲)에 大君師傅에 除授되어 恩命이 再及하였는데 肅謝하기로 결의하고 昌寧에 이르러 稱病하여 나가지 아니 하였다. 또한 己亥年 봄 75歲때 工曹左郎에 除授되었으나 이때는 老病으로 不赴하였다. 위와 같이 徵召에 應하지는 못하였으나 선비의 愛君憂國의 심정은 늙을수록 더욱 돈독하여서 仁孝 兩廟喪에는 卒哭까지 素食을 하므로 左右에서 그의 健康을 근심하였다 한다. 앞서도 말했지만 先儒들의 事親의 規範은 居則致其敬하고 養則致其樂하고 病則致其憂하고 喪則致其哀하고 祭則致其嚴하는<sup>3)</sup> 것을 실천하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父母의 병에 「管羹甘苦」라든가 「侍墓三年」이 어려운 것이지만 儒者들의 操行에 드는 일이었다. 때문에 喪身이 되면 官爵도 固辭하는 것이 常例였다. 이것이 그 사람의 人格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潤松先生의 孝行과 出處에 있어서는 조금도

3) 孝經「紀孝行章」

과장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筆者는 그의 事蹟에서 하나를 적고 많은 것을 빠트렸다.

晩年の 生活은 76歲 때(1659년) 霜露庵에서 望慕庵(合江精舍)으로 移居하였고 그 翌年에 特旨로 米豆의 下賜를 받았으며 陳謝疏와 함께 時務14條를 올렸다.<sup>4)</sup> 癸卯年에 寢疾에 들어서 1664년(甲辰) 2月 15日 考終하니 享年 80歲였다. 先生의 訃聞이 郡守 權口毅公에 의하여 巡營의 監司 李尙眞公에게 알려지자, 먼저 米布로 賻助하고 朝廷에 啓聞되어 朝家에서는 戶曹로 하여금 따로 米布로 賻助를 내리었다.<sup>5)</sup> 越葬하여 4월에 鵝湖 先塋의 東쪽에 장사 지냈다. 그때 肅宗大王의 批答이 身在草野 纒纒陳戒 言切意深 惓惓之誠 深加感嘆한다 하였다.

顯宗 7년(1666 丙午)에 士林들이 先生의 行義로써 巡嶺에 글을 올려 朝廷에 전달되어 司憲府持平의 贈職이 내렸다. 또 景宗元年(1721, 辛丑)에는 士林의 孫翼龍 등이 請疏하여 松亭書院을 咸安의 安仁里에 세우고 位版을 奉安케 하였으며<sup>6)</sup> 訥隱 李光庭先生이 澗松集의 序文을 쓰고, 또 墓碣文을 지었다. 銘文에 말하되

巴山(咸安) 趙氏에 漁溪(旅)先生이 계시어 데대로 貞直을 이어 받으니 우리 澗松先生이 뛰어나시었다. 그의 行實은 孝悌와 忠信이요, 배움에는 연원이 있다. 경리 앎을 실천하고 바름을 가지고서 거짓을 물리쳤도다. 寶質로써 躬行하였으니 저 龍華山 언덕에 늙늙한 高風이 있도다. 風松竹林에 그 무덤이 계시는데 내가 극진히 先生의 자취를 銘記한다.<sup>7)</sup>

고 하였다. 그리고 澗松集 序文에서는 先生의 高節(鄭仁弘의 序)을 伯夷와 魯仲連에게 비기었다.

- 4) 顯宗改修實錄：前工曹佐郎 趙任道上疏 辭賜米仍 請立 聖志修聖學，嚴宮禁親儒臣，開經筵興學校，修武備棟闔職，撫軍卒擇守令，明黜陟急農務，正風俗勸節行，養廉恥崇禮儀，上褒答之，任道 嶺南人也，曾在 仁孝兩朝 除師傅佐郎等職皆不就 御史南九萬薦其行誼，且言年已老，上命道臣，倣古賜高例，優給米菽，任道上疏辭謝，仍進陳戒之言。(肅宗 3年 p.297)
- 5) 前佐郎 趙任道靈山人，故參贊張顯光之門人，頗有名譽，左贊成宋時烈 爲吏曹判書，啓於榻前，直隕六品至是卒，上聞之，令本道給喪需。(顯宗 5年 3月條)
- 6) 朝鮮王朝實錄 景宗元年 5月條 p.158.
- 7) 李光庭撰：銘曰，巴山之趙 有漁溪翁 世襲其貞 挺我澗松 先生之行 孝悌忠信 學有宗派 正知實踐 正以距邪 實以視躬 華山之阿 有凜高風 風松竹林 其封四尺 我哉以銘 先生之迹。(澗松文集貞卷 附錄p.4)

### Ⅲ. 立岩時調의 발견

立岩 趙植(1549~1607)의 壬亂前에 지은 時調4수가 발견되었다. 이 작품은 그의 아들인 澗松 趙任道(1585~1664)의 澗松文集 외에 별책 「追慕錄」에 등재되어 있다. 趙任道는 金滸泉(承旨)과 高杜谷에게 受學하여 張旅軒(顯光)의 高弟로서 宣祖朝에서 顯宗期에 이르기까지 80년 동안에 忠孝와 文章行誼로써 천망되어 工曹佐郎에 除授되고 司憲府持平에 증직된 朝野에 알려진 분이다. 그의 追慕錄은 先大人 立岩公의 事蹟과 文學이 난리에 흩어지고 전하지 못함을 개탄하여 자료를 모아 그것을 해설한 책이다.

趙立岩은 咸安趙氏로서 副司直 膾參判 趙庭彥의 아들인데 조선조 明宗 4년에 咸安郡 劔岩里에서 나서 宣祖 40년에 59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漁溪 趙旅軒의 玄孫이다. 氣質이 純眞하여 거짓이 없고 말이 적었다고 한다. 壬辰, 丁酉倭亂을 겪으면서 陝川에 옮겨 피난생활을 한적도 있었고 漆谷郡 仁同에 寓居한적도 있었다. 늦게 故山에 돌아와 泉石과 漁樵의 生涯로서 自然에 묻혀있다. 그의 時調는 다음과 같다.

- 1) 草堂의 할일업서 훈낫대 풀 비들삼아  
白石 淸溪에 오며가면 흐는 뜻은  
子陵의 넷낙던 고기를 낚가보랴 흐노라.
- 2) 草堂의 일이 업서 碁局으로 淸日하며  
時時로 낫대들고 岩曲으로 내려가니  
白鷗도 내 뜻을 아뵈다 흠희하랴 흐느다.
- 3) 어제는 물을보고 오늘할 비호보니  
檜原 斗호싸흠 다보고 가거니와  
내뜻의 未盡하니 다시오랴 흐노라.
- 4) 鱸魚 | 슬머시니 秋興이 ㅁ이얼다

滄波 一葉舟에 님보내려 와있더니  
白沙의 夜沈沈하니 갈길몰라 호노라.

위의 4首中에 歌番 1).2)는 그의 성벽이 山水泉石을 좋아해서 逍遙하다가 湖溪. 南旨, 鶴岩에서 남시질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 朝往慕歸하고 樂而忘倦하는 溪山의 즐거움을 노래한 것이다.

가번 3)은 그가 歌舞風調를 하면 듣고 보는 사람들이 정신없이 좋아했는데 이날은 昌原의 士友들과 배를 타고 月影臺 斗尺山下에서 山海를 구경하며 소창하다가 헤어질 때 술잔을 들고 부른 노래라고 한다.

가번 4)는 戊子年(1588년) 가을에 威安郡宰이던 鄭寒岡(述) 선생이 벼슬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 餞別하는 일행으로 그의 兄弟와 玄風守 安敏學이 鄭先生을 拜別하고 武溪沙에 모여서 秋江暮景에 술이 지나갈 때 좌우의 권유가 있어 부른 노래라고 한다.

일찍이 澗松集(4책)은 널리 알려져서 利卷 3에 「先府君詩歌錄跋」을 볼 수가 있었다. 그러나 立岩時調가 수록된 「追慕錄」은 쉽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1612년에 씌어진 澗松先生의 跋文에서 그는 壬辰倭亂을 겪으면서 家世書籍이 蕩然一空하고 이제 遺稿中에 오직 四韻二首와 短歌五闕이 임란전의 所作으로 口傳되어 전해진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4首가 발견될 뿐이다. 그 밖의 數十餘首는 난리 후 지었다고 했다.<sup>8)</sup> 지금 그 작품의 유무는 알 수가 없다.

이제 立岩時調의 평가는 그의 時代가 난숙기로서 趙 堉은 時調에 대한 이해와 창조적인 솜씨가 능숙했었다. 그것은 작품의 措辭라든가 現場에의 즉흥적인 構成등이 그러하다. 時調史上 江湖生活의 假漁翁의 경지이면서 한점 서름없는 것이 그 특징이다. 그렇다고 求道의인 性格의 詩歌도 아니면서 自然親和가 순수한 風流格이다. 대개 居住地를 중심한 泉石과 交遊

8) 右詩歌錄一篇, 我先君所作也, 先君平日不喜述作, 又未嘗從事於聲律, 而性情之發於吟詠者, 或爲詩爲歌短律絕句之外, 又有長篇古詩 積成卷軸如竹樓等, 詩大爲當時所稱賞, 而今皆散亡無一存者 惜哉惜哉. 一中略一 今其遺稿中, 唯四韻二首 短歌五闕, 爲昇平時所作 而得之於口傳者也, 其餘數十餘首則, 皆亂離以後之作也(澗松文集 卷四 3) 그리고 筆者가 발견한 追慕錄은 한 장이 찢겨져 나갔음을 밝혀둔다.

의 逍遙가 그 素材이다.

立岩 趙埴이 일찍 아들 澗松堂의 學業을 金承旨 槃泉公에게 청하여서 安東 淸涼山에서 受業시키다가 壬辰丁酉亂이 끝날 무렵에 그곳을 떠날때 槃泉公이 送時를 주었는데 그 詩의 내용이 다음과 같다. 「내가 趙氏 늙은 친구를 좋아함은 점잖은 長者다운 風儀가 있음으로서다. 작별을 하고 돌아와서 顏範을 상상해 보니 좀처럼 나의 心中에서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것은 그의 人品에 대한 느낌이다.

그는 自號를 休休子라고도 하였는데 立岩이라 함은 居亭 남쪽 수백보 떨어진 곳 山腰에 巨石이 있어서 사람들이 불러 立岩이라 하였다.

#### IV. 結 言

오늘날 우리 國文學徒는 그 研究하는 대상을 좁게 잡아서 정음문학자리에만 집착하는데, 광범하게 國學面의 業蹟도 우리들이 探究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마침 澗松 趙任道先生이 그의 先大人 立岩公의 時調를 拾遺하지 않았던들 現代學問에서 제외되어 아는 사람만이 알 뿐이었을 것이다. 澗松先生은 그 業績과 孝行과 文章行誼 등이 당연히 尊崇되어야 할 儒賢의 한 분이다.

立岩 趙埴이 漁溪(旅)先生의 玄孫이니까 澗松公은 五世孫이다. 漁溪先生이 生六臣의 한 분으로 出仕하지 않고 伯夷山 아래 隱居하였으니 그의 子孫들의 進出이 평탄할 수가 있었을까. 1698년 肅宗 24년에 端宗王位가 복위되자 漁溪 趙先生에게 都承旨, 吏曹判書를 贈職하게 되었다. 이로 보면 祖父인 諱 庭彥(贈參判) 때 와서 安定과 經濟의인 터전이 잡혀진 듯하다. 그것은 澗松 趙任道를 멀리 遊學케 한 일과 樓亭의 新築등으로 보아 짐작된다. 얼마만에 이 門中에서 澗松 趙任道와 大笑軒 趙宗道 兩先生이 卓然하게 태어난 人物이다. 趙宗道 선생은 壬亂 때 殉國한 忠節이다. 저 矗石樓詩에 일컫어진 三壯士의 한 분이요 뒤에 吏曹判書의 贈職이 내리었다. 두 분은 그 高節과 操行으로서도 嶺右의 法家이었다.

立岩時調는 壬胤前의 작품이란 것과 그것이 1610年代의 初印本에 수록되어 온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당시 儒學者의 사이에 認識되어 江右詩歌의 脈絡을 이룬 것이다.

※ 이 論考는 1980년 가을 月例發表會에서 발표한 예정으로 쓰인 것인데 時局 관계로 미루어 졌다. 다음 기회에 合江精舍 現場에서 발표를 가질 것이다.